

고흥군 지난해 출산·인구정책 ‘절반의 성공’

전남 22개 시·군중 꼴찌였던 합계출산율 크게 올라
어장 임대·장학금 확대 등 불구 인구는 920명 줄어

고흥군이 지난해 추진했던 저출산 극복 정책과 인구 늘리기 평가를 놓고 지역민들의 눈길이 쏠린다.

우선, 통계 수치를 놓고 보면 출산 정책은 긍정적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을만하다.

◇출산율은 오르고=8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의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2명(2016년), 전남 22개 시·군 중 꼴찌였던 전년도(1.09명)에 견줘 크게 늘어났다. 애초 목표로

했던 ‘합계출산율 1.205명’도 거뜬히 달성했다. 목포(1.27명), 순천(1.25명)보다도 높다.

특히 저출산·비혼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합계출산율이 오른 곳은 한 곳도 없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오른 곳은 고흥 외에 함평(2015년 1.63명→2016년 1.70명), 영광(“ 1.65명→“ 1.66명), 완도(“ 1.77명→“ 1.83명), 신안

(“ 1.54명→“ 1.57명) 등 5곳 뿐이다.

고흥은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270명(2016년)으로 전년도(236명)보다 많았다.

고흥군의 경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고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풍성한 혜택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마련, 총력전을 펼친 게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도 인구는 줄고=인구늘리기는 쉽지 않았다.

고흥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73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말 6만765명보다 920명이 줄었다.

지난해 인구 유입책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토지와 어장을 빌려주는가 하면, 관

내 중소기업과 연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교 재학생까지 지원했던 장학금 지원사업을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홍보해도 쉽지 않았다.

젊은층이 빠져나가면서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고흥군의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5496명으로 전체 인구의 38.2%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고흥군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16년(2만5364명·37.5%)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전남도 전체 노인인구도 21.0%(2016년 39만8916명)에서 21.5%(2017년 40만8451명)로 증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례군 인구 5년 연속 증가

지난해 113명 늘어...3만명 향해 다양한 사업

구례군 인구가 5년 연속 증가했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구례군 인구는 2만75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412명) 대비 113명 늘었다.

구례군 인구는 지난 2012년 2만7077명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기업 유치와 귀농 지원 등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단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문을 열면서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올해 자연드림파크 2단지에 6개 기업이 새로 입주, 250

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귀농 인구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마을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2012년 297명이던 구례의 귀농 인구도 지난해 1713명까지 늘었다”면서 “인구 3만명이 넘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곡성 관광명소 담은 여행달력 나왔다

눈 쌓인 섬진강 기차마을, 침실습지, 고즈넉한 심청한옥마을, 화려한 장미공원과 세계장미축제 등.

곡성의 아름다운 명소, 특산물, 축제 등을 담은 곡성 여행달력(사진)이 만들어졌다.

곡성군은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민들이 계절별로 가볼만한 곡성지역 대표 관광지를 담아 한 눈에 보고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도록 했다.

1월엔 눈 쌓인 섬진강 기차마을을 배경으로 했고 2월에는 섬진강 도깨비 마을을 담았다. 3월에는 침실습지, 4월 한옥마을, 석곡 코스모스축제(9월), 구월초 공원(10월), 도림사(12월) 풍경 등도 포함됐다.

곡성군은 1000만원을 들여 여행달력 2000부를 제작, 전국 여행사와 광주·전

남 초등학교 등에 배포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고흥군수협 창립 102년만에 최대 실적

지난해 62억원 순수익
물김 위판고 38% 늘어

고흥군수협이 창립 100여년 만에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흥군수협에 따르면 군 수협은 지난해 62억원의 순수익을 올려 1916년 창립 102년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흥군수협은 지난해 이용가공사업과 수도권 지역 금융사업 부문에서 탁월한 영업 실적을 올리면서 창립 이후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가공사업 부문에서는 지역특산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켜 홍보에 나선 점이 판매 신장에 한몫을 했고 수도권인 광명시 광명동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지점을 통한 금융사업도 고흥군수협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고흥군수협은 조만간 결산총회를 거쳐 최고 수준의 출자배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수협의 물김 수매가 이뤄지고 있는 장면. <고흥군 수협 제공>

물김 위판고도 크게 늘어났다.

고흥군수협은 황백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냉동채묘발과 해태망 등을 지원해 지난해 말 물김 위판고가 전년도에 견줘 38% 늘어난 7만8195t(776억9600만원)에 달했다.

고흥군 수협은 2018년산(4월말경 위판 종료)의 경우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홍재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눈높이에 맞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 작은영화관 개관 2년만에 누적 관람객 12만명 돌파

고흥 작은영화관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관한 고흥 작은영화관이 누적 관람객 12만명을 돌파했다.

작은영화관은 지난 1990년대 초 지역에 유일하게 있던 ‘고흥극장’이 문을 닫은 이

후 20여년 만에 생긴 영화관으로, 개관 2년도 못돼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관은 3D 영화를 볼 수 있는 최신식의 상영시스템 뿐 아니라 도시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최신 개봉 영화를 개봉, 상영하면서 멀리 가지 않고 내고장, 집 근처에

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당일 상영되는 모든 영화를 3000원의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보성군 농특산물 46억원 판매 실적

지난해 국내 판매 18억, 14개국에 28억원 수출

보성군이 지난해 국내외에서 46억원의 농·특산물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국내에서 펼쳐진 박람회, 작거래장터, 쇼핑몰 등에서 18억원 상당의 판매 성과를 냈고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 14개국에 대상으로 28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17개 박람회에 89개 업체를 참여시켜 3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 오픈한 인터넷쇼핑몰 ‘보성물’을 통해서도 4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군 공직자들도 1억원 상당의 ‘보성쌀 팔아주기’로 힘을 보탰고 참다래, 꼬막 등 10개 품목(1062t)을 14개국에 수출, 28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참다래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2억원의 실적을 냈고 벌교 꼬막 통조림은 미국에 7억원, 단호박은 일본에 4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